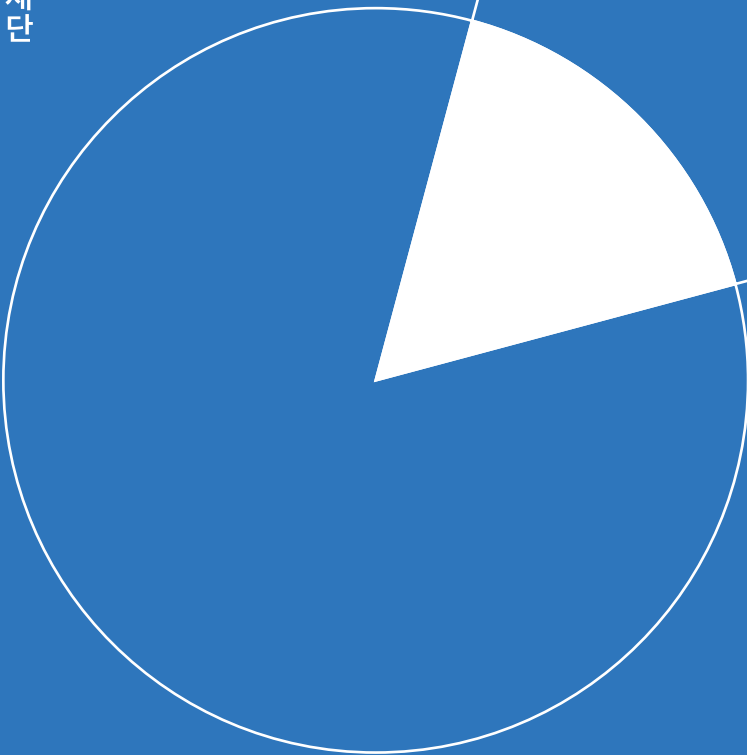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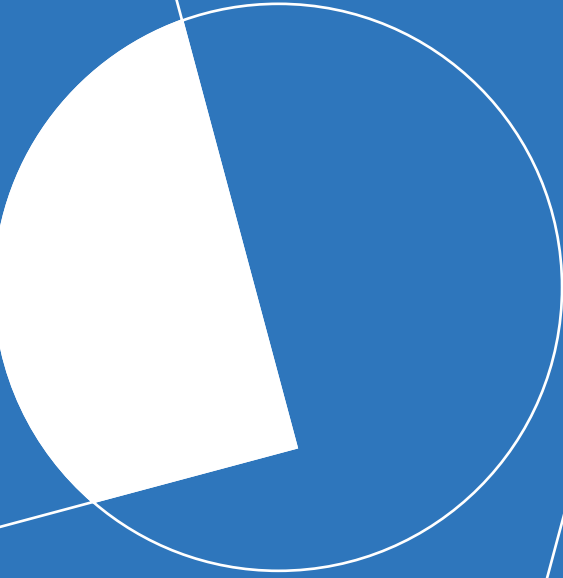


# 우리시각

2024 발달장애 미술가 육성사업

우리시각 작가 작품소개집



서울문화재단

아르티팩트미래재단

# 우리시각

서울문화재단과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재능 있는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이 전문 작가로 도약할 기회를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발달장애 미술가 육성사업 <우리시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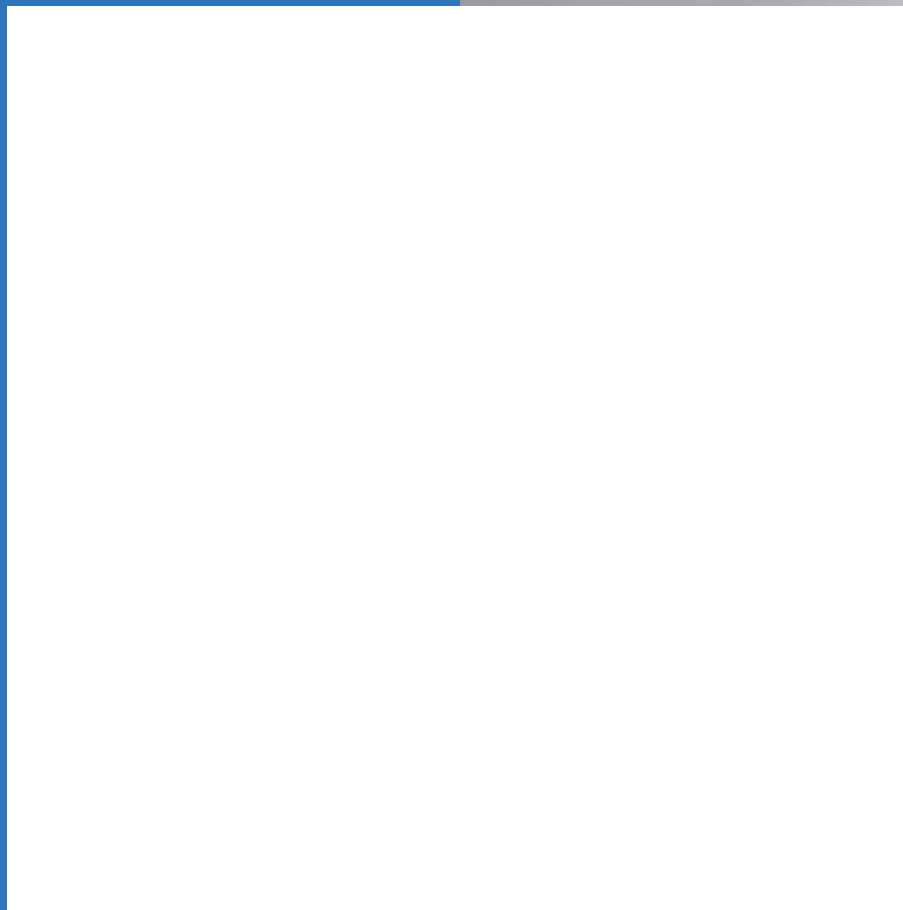
시각예술 분야 발달장애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서와 실기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발달장애 예술인에게 1,000만원의 재료비·제작비와  
전문 미술작가와의 맞춤형 1:1 멘토링, 포트폴리오 제작 등을 지원했고  
이 작품집에 2024년 <우리시각> 사업에 참여한  
10명의 작가 작품을 실었습니다.

|          |     |
|----------|-----|
| 사업 소개    | 2   |
| 작품 소개    | 4   |
| 강원진      | 6   |
| 김동호      | 16  |
| 김선태      | 26  |
| 김승현      | 36  |
| 민소윤      | 46  |
| 박기현      | 56  |
| 심규철      | 66  |
| 유효석      | 76  |
| 이은수      | 86  |
| 조태성      | 96  |
| 우리시각의 여정 | 106 |

<우리시각>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작가님들의 작품 활동의 폭이 넓어지는 것,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서 장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혹은 예술계의 다른 분들이 장애예술인에 대한  
시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김병진 / 우리금융미래재단 브랜드전략부 부부장



## About Artist

저는 길에서 만나 새로운 가족이 된 고양이 아롱이를 비롯해, 우리 주변 곳곳에 설치되어 있지만 잘 인식하지 못했던 수많은 경고판이나, 수집한 화폐와 우표에 그려진 다양한 패턴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잘 인식하지 못하는 대상들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저는 섬세한 시선으로 바라본 풍경을 담담하게 그림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작은 소리의 파장도 크게 느끼는 저는, 그 그림을 통해 증폭된 파장의 물결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롱이는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양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렌즈와 같아요. 그래서 제 그림 속에서는 제가 고양이가 되어 우주나 도시 속에 등장하기도 하고, 평소 가보고 싶었던 출입금지구역과 같은 금지된 장소에도 자유롭게 찾아갑니다. 때로는 하이힐을 신은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동물을 의인화하는 작업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캔버스에 아크릴펜으로 그린 후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하며, 고양이의 털, 동물의 줄무늬, 물결 등을 일정한 간격과 방향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조롭게 보일 수 있지만, 그 규칙성이 주는 시각적인 안정감이 저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 Mentor's Comment

강원진 작가는 패턴을 규칙적으로 그려 나가는 특징이 있어서, 불규칙적으로 그리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을 그어 보도록 시도했어요. 집에 동화책이 많이 있다고 해서 동화책을 오려서 콜라주를 해보는 수업방식을 생각하다가, 동화책에 직접 그림을 그려 보기도 하고요. 가사 쓰는 것과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음악적인 감수성이 뛰어나다 보니 이미 되어있는 작업 외에 다른 재미있는 시도들을 해보았습니다. - 나오미







화페문양  
2024  
나무에 아크릴  
53 x 45.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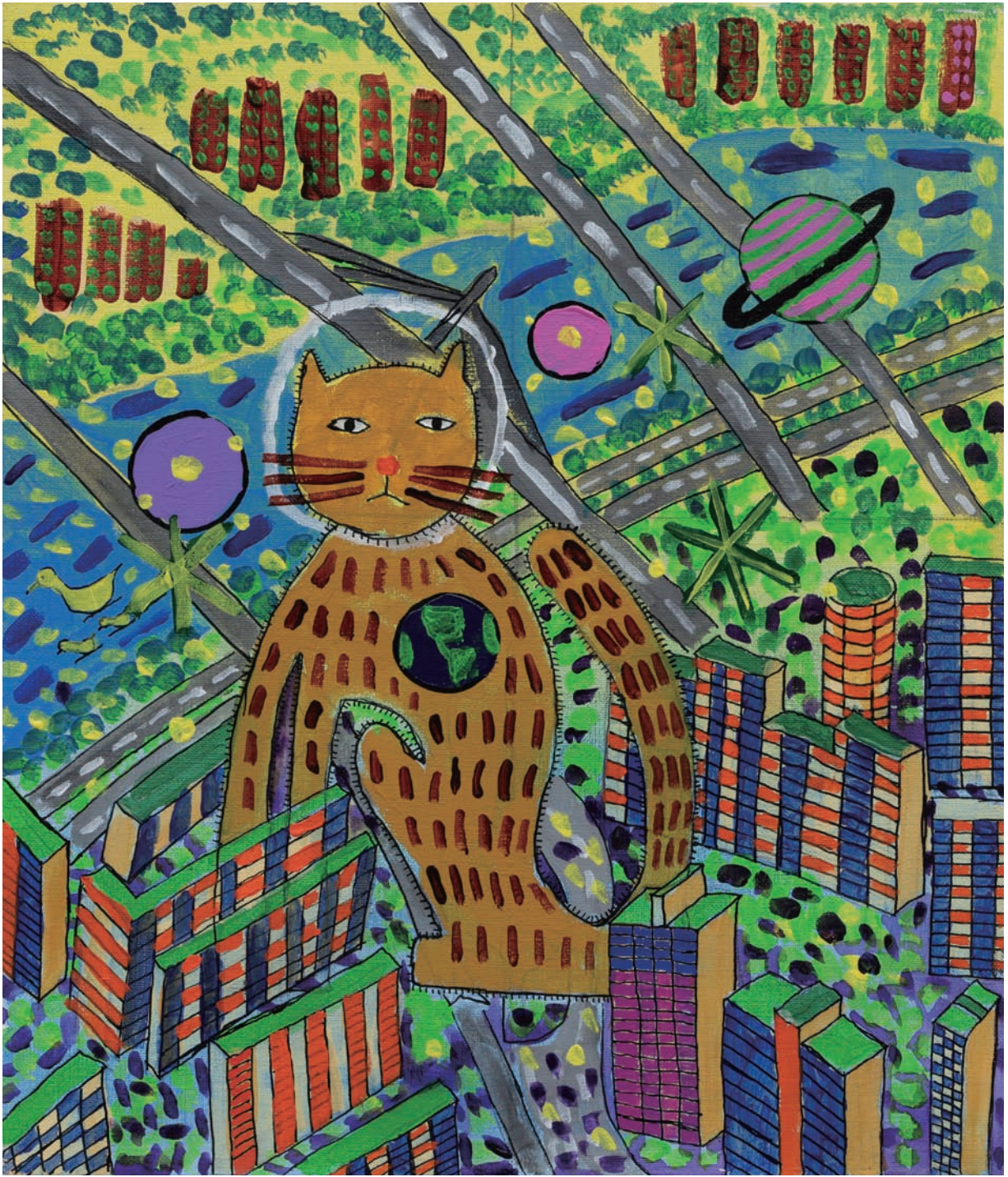


화페문양  
2024  
나무에 아크릴  
53 x 45.5 cm





우주고양이의 여행  
2024  
캔버스에 아크릴  
45.5 x 53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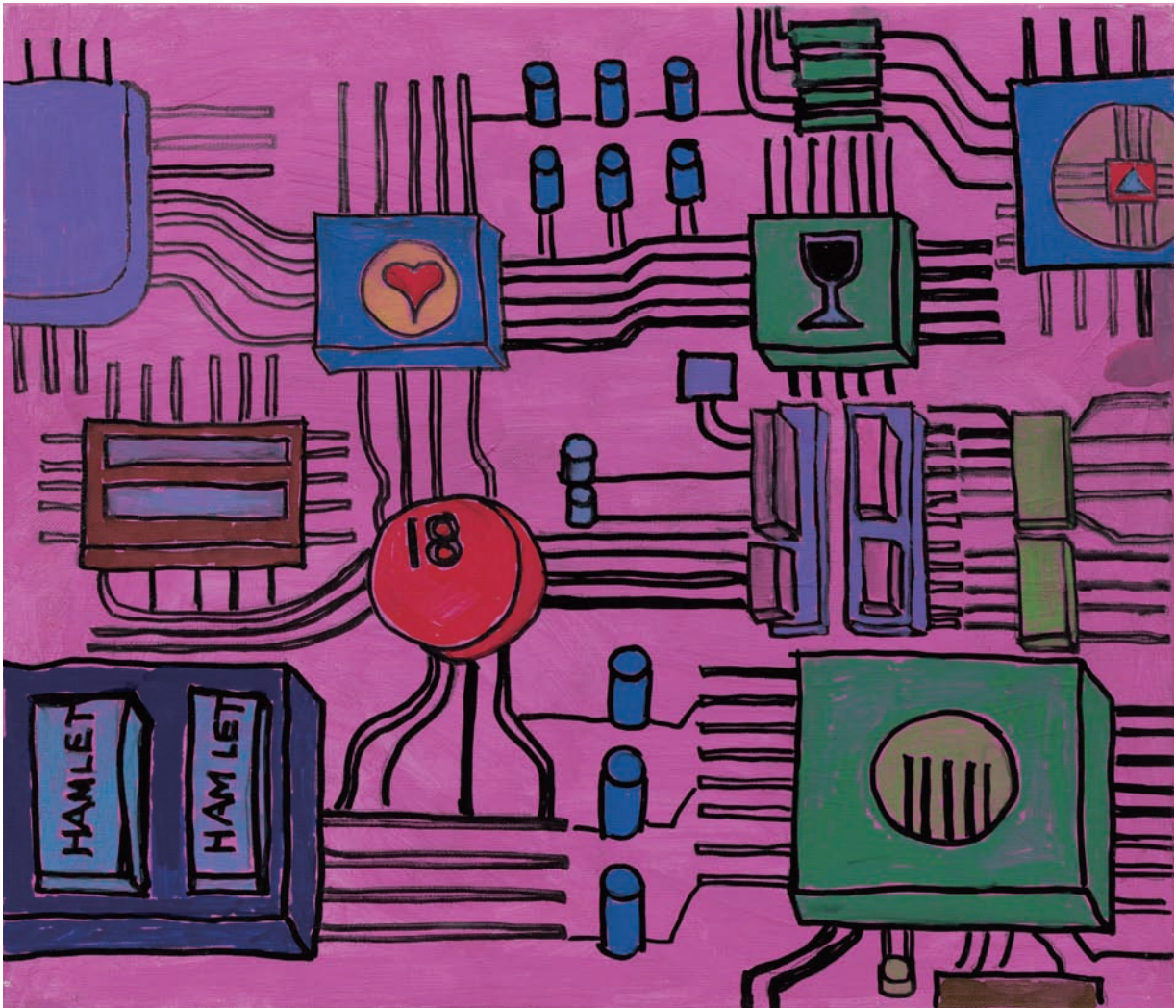


우주고양이의 여행  
2024  
캔버스에 아크릴  
45.5 x 53 cm





자화상  
2024  
캔버스에 아크릴  
53 x 65.1 cm



마음 회로도  
2024  
캔버스에 아크릴  
40 x 32 cm





바다여행  
2024  
캔버스에 아크릴  
41 x 32 cm



나의 이웃  
2024  
캔버스에 아크릴  
50 x 32 cm 2점





## About Artist

김동호 작가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동물, 자동차, 풍경 등 친숙한 소재로 독특한 세계를 구축합니다. 그는 이런 일상적인 장면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며 소통합니다.

동물은 작가에게 친숙한 존재로,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길에서 만나는 고양이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다양한 표정은 영감을 주며, 동요 속 동물들은 어린 시절의 감정과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작가는 이를 통해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포착하고 기억하려 하며, 동물들을 감정과 기억을 시각적으로 연결하는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자동차는 작가의 일상에서 중요한 주제로, 이동의 상징으로서 길과 그 위의 경험을 표현합니다. 자동차의 속도감과 여행의 느낌은 작가의 작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창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동호 작가는 관찰과 기억을 중시합니다. 그는 매일 마주하는 사물과 생명체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이를 통해 감정을 정리합니다. 이 반복적인 과정은 그의 감정과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이를 그림 속에서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림을 그릴 때 김동호 작가는 주로 연필과 수채 색연필을 사용해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그는 사진에 담긴 모습뿐만

아니라 기억을 바탕으로 생략하거나 추가된 요소를 통해 작품을 완성합니다. 유튜브 콘텐츠에서 영감을 얻어 색감을 조화롭게 배합하고, 번지는 선과 색의 결합으로 독창성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과정은 일상에서 접하는 대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며, 그의 시각적 탐구를 확장시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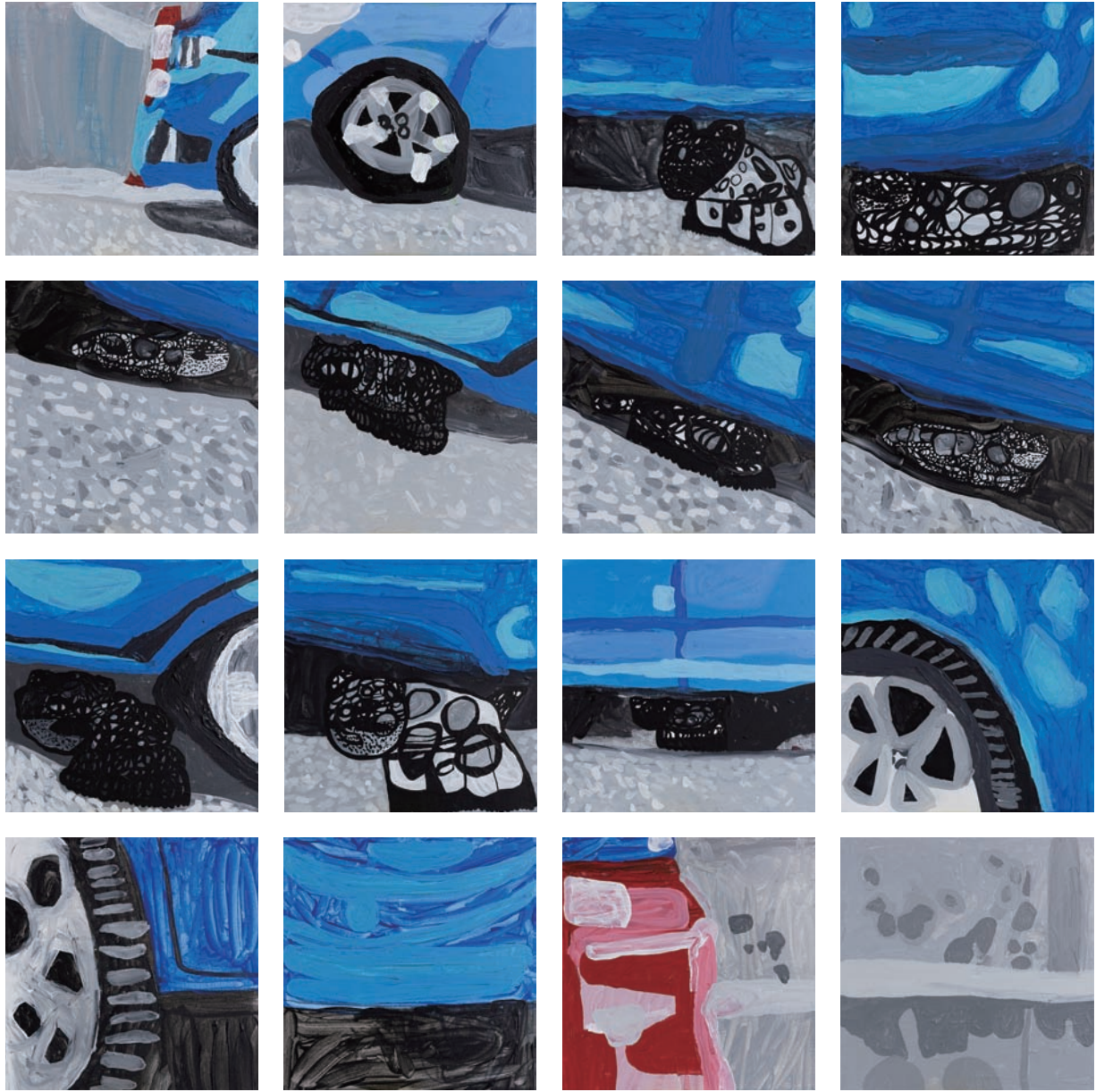
김동호 작가의 작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텍스트(대상의 사전적 명칭 등)는 작가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관계 맺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선과 색, 텍스트가 조화를 이루는 그의 작품은 독립적인 세계를 구축하며, 관객과의 관계 맺기를 시도합니다.

## Mentor's Comments

김동호 작가의 핸드폰 사진첩을 한 번 보게 되었는데, 연속적으로 찍힌 일상의 사진들이 인상 깊게 와닿았어요. 그런 모습들을 작업으로 가져오면 어떨까 해서 연작 시리즈로 만들어 봤고요. 김동호 작가는 작업할 때 동요를 많이 부르기도 하고, 드로잉을 할 때는 수채 연필을 물에 찍어서 작업하기도 합니다. - 김태협







작은풍경 시리즈  
2024  
캔버스에 아크릴  
20 x 20 cm







자동차 밑에서 본 고양이  
2024  
캔버스에 아크릴  
116.8 x 91 cm



자동차 밑에서 본 고양이  
2024  
종이에 색연필  
60 x 44 cm





횡단보도에서 본 고양이  
2024  
종이에 색연필  
116.8 x 91 cm



산중호걸  
2024  
캔버스에 아크릴  
90.9 x 72.7 cm





기린  
2024  
캔버스에 아크릴  
60.6 x 72.7 cm



곰 세 마리  
2024  
캔버스에 아크릴  
72.7 x 60.6 cm



About Artist

나는 포르투갈어, 한문, 영어, 일어, 요리, 시 그리고 역사에 관심이 많다. 나는 역사의 인물을 그리고 시를 쓰며,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린다. 나의 그림에는 나의 생각과 일상이 담겨있다.

2024년 그린 <동생>그림은 일본 후쿠오카 여행 후 그린 그림인데 내가 여태껏 시간이 없어서 가족 그림을 잘 못그렸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을 내어 그려보았다.

이 그림의 시작은 목탄이다. 내가 목탄을 고집하던 이유는 목탄은 흑백으로 되어있고 세피아 색 느낌이 강하다. 옛날사진은 다 색깔이 흑백사진이었다. 즉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때 그 시간으로 영원히 남게된다. 나는 동생하고 그닥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난 그런거 생각 안 한다. 나는 오직 사람 얼굴에서 기쁨, 슬픈, 분노, 이런 거 상관 없이 모든 것을 담는다. 이 작품은 동생이 일본에 있을 때 행복한 느낌을 담은 건데 이 순간도 동생의 영원한 순간을 기억한다는 의미로 그렸다.

원래는 미술에 크게 관심은 없었다. 하지만 관심이 없다면, 마음을 점차 열어보는 것이 어떤가 늘 생각해왔다. 그렇게 하면서 미술과 친해졌고, 이렇게 작가로 성장하였다.

Mentor's Comments

김선태 작가의 자화상은 굉장히 유니크하고 자신만의 색깔이 잘 드러나 있어요. 인물화도 작가의 관심사가 역사, 인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작가가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은지가 잘 드러나는 작업들이에요. 김선태 작가와 함께하는 2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갔어요. - 김동기







고양이  
2024  
캔버스에 아크릴 목탄  
200 x 150 cm





골목포차 사장님  
2024  
한지에 목판화  
30 x 30 cm



능영지산  
2024  
한지에 목판화  
30 x 30 cm





동생  
2024  
캔버스에 아크릴 목탄  
120 x 150 cm





About Artist

저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그 장면이나 상상의 경계에 있는 풍경을 그립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강릉의 코스모스, 여름날의 평화로운 순간을 그리지만, 최근 작업에서는 일상 속 풍경이 상상의 세계로 확장되어 바다 생물들이 자유롭게 유영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의 배경에는 어린 시절 자주 방문한 수족관에서 받은 영향이 큼니다. 거대한 유리 돔 속에서 본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현재의 작품에 반영되어, 현실과 이상 세계가 한 화면에 공존하게 됩니다. 저는 그림을 통해 관람객을 그 세계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주로 그리는 바다 생물은 흰동가리, 블루탱, 해마, 불가사리 등으로, 그들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표현하려 합니다. 바다는 제게 미지의 우주처럼 느껴지며, 이를 초현실적으로 그립니다. 또한, ‘술베감팽’과 ‘라바콘’은 위험을 피하는 상징으로, 애니메이션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에 등장합니다.

캔버스와 종이 위에서 과슈와 아크릴을 사용해 색감을 쌓아가며, 여러 번 덧칠하는 과정을 통해 원하는 색을 구현해 나갑니다. 이 과정을 즐기며 새로운 기법을 계속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Mentor’s Comments

김승현 작가는 재주가 너무 많은데 그림에 다 보여지지 않아서 너무 아쉬워요. 환상적인 바다 풍경과 생물들, 환상 세계에 펼쳐지는 그림들은 자신의 경험에서 발전되어 확장되고 있어요. 색을 섞는 것과 물을 다루는 것에 뛰어나고, 작품의 상상력이 정말 재미있어요. - 나옴







말미잘 정원  
2024  
캔버스에 아크릴  
116.8 x 91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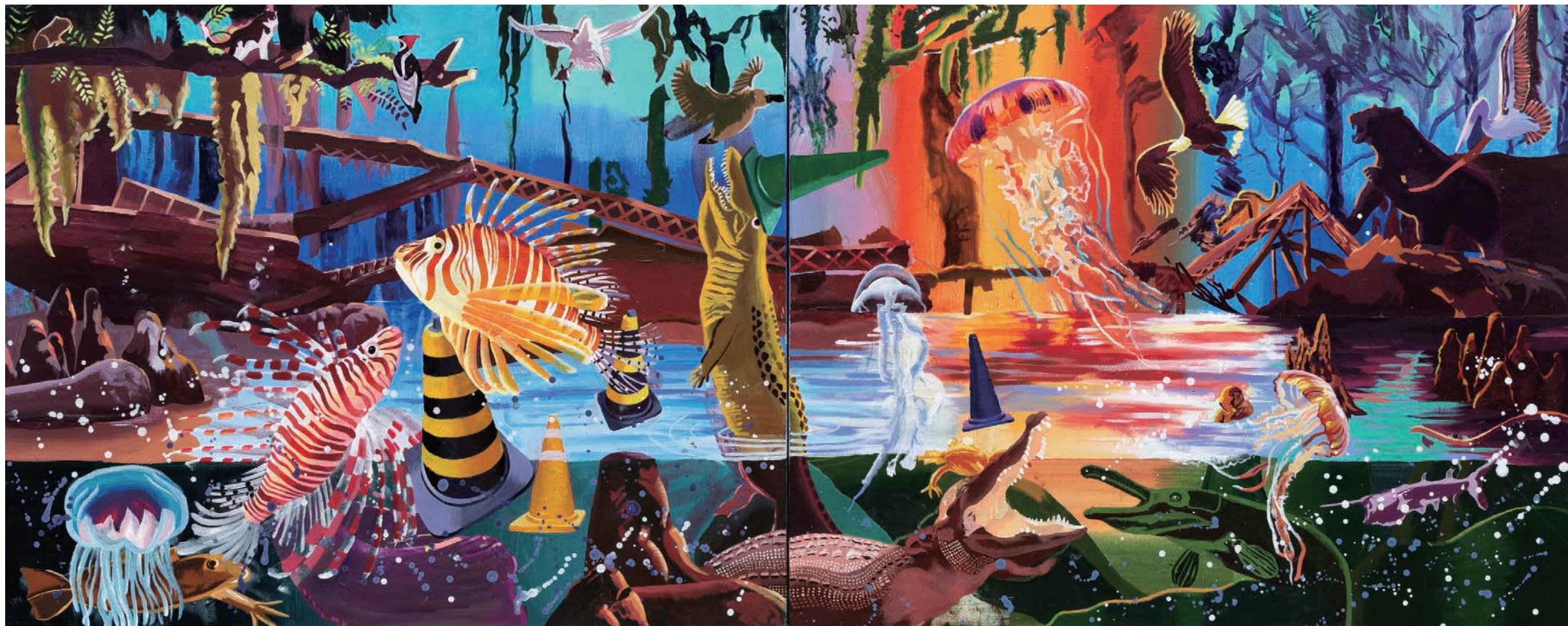




잃어버린 해저 도시를 찾아서  
2024  
캔버스에 아크릴  
116.8 x 91 cm







우리의 유토피아를 찾아서  
2024  
캔버스에 아크릴  
181.8 x 72.7 cm 2점



About Artist

저는 자연에서 위안을 얻는 것을 좋아하고, 그 느낌을 그림과 글로 따뜻하게 표현하려 합니다. 무거운 주제도 제 나름의 워트로 가볍게 풀어내고, 언어적 유희를 즐기며 글을 씁니다. 자유롭게 써내려간 글을 읽으며, 제가 꽃과 나비, 노루에게서 느꼈던 위안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웅크린 모든 존재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습니다.

작가는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심한 자폐성향을 가진 중복 장애인입니다. 하나의 장애만으로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불안한 일인데, 작가는 외부 세계에 민감하고 불안을 강하게 느끼는 조건을 가집니다. 보행과 움직임에 제한이 많아 신체적인 불안감이 크고, 시각적 어려움과 청각에 대한 예민함이 다른 감각을 더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통’이 작가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작가에게 그림은 자기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의 대체수단입니다. 작가의 그림에는 세상에 대한 불안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대상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가 여러 방법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소리에 놀라 펄쩍 뛰어오르는 노루의 모습은 마치 자기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 노루를 매개로 한 그림이 자주 등장합니다.

Mentor’s Comments

민소윤 작가가 첫 수업 시간에 노란 꽃다발을 선물해줬어요. 매주 꽃 시장에 간다고 해요. 소윤 작가는 평소에 하는 말들이 아름답고, 꽃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는 따뜻함도 있어요. 작업할 때 즐거운 일들이 많았고, 이런 소윤 작가의 특징이 예술 활동을 하는 힘인 것 같아요. - 나옴







아름다운 나 BLUE  
2024  
린넨에 아크릴  
60.6 x 72.7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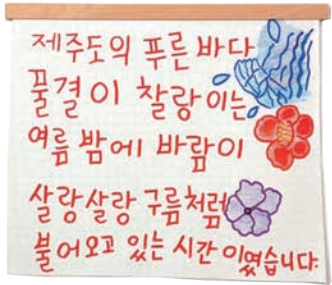


첫만남은 너무 어려워  
2024  
캔버스에 아크릴  
90.9 x 65.1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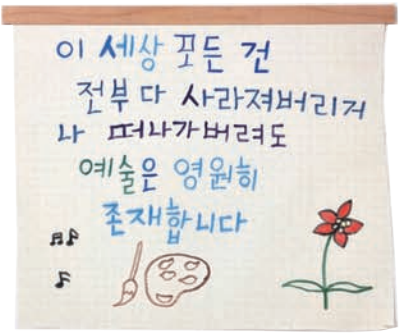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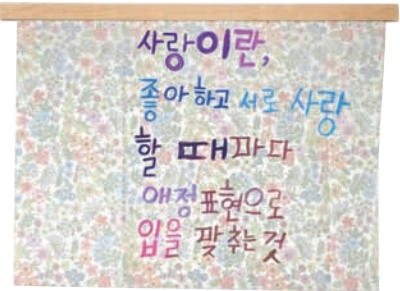
젓소 시리즈  
2024  
종이에 마카펜  
21 x 29 cm



제주도의 푸른바다  
2024  
린넨에 아크릴  
45 x 34 cm



아름다운 세상  
2024  
린넨에 아크릴  
33 x 41 cm, 40 x 35 cm



사랑이란  
2024  
린넨에 아크릴  
45 x 34 cm





흰올빼미  
 2024  
 린넨에 아크릴  
 60.6 x 72.7 cm



Mother Nature 대자연  
 2024  
 캔버스에 아크릴  
 40 x 30 cm 3점, 50 x 40 cm 2점





Beautiful Flowers  
2024  
캔버스에 아크릴  
65.1 x 53 cm



노루숲  
2024  
캔버스에 아크릴  
116 x 86 cm



About Artist

박기현 작가는 유화를 통해 깊이감과 질감을 능숙하게 다루며, 화면에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유화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색조와 섬세한 터치로 시각적 깊이를 더하고, 원근감 표현과 어우러져 작품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이러한 기법은 관람객이 작품에 몰입하게 하고, 감정을 강하게 느끼게 합니다.

또한, 아크릴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색으로 생동감 있는 형태를 구현하며, 재료를 혼합해 작품에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불어넣습니다. 이 방식은 각 매체의 장점을 보완하며, 작품의 완성도와 이미지를 선명하게 만듭니다. 작가는 이 과정을 통해 더욱 풍부한 시각적 경험을 창출하고, 개성과 독창성을 강조합니다.

그가 즐겨 그리는 여행지와 사파리 풍경은 현실과 이상적 세계관의 조화를 이루며, 보편적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합니다. 작품 속 대칭적인 구도는 안정감을 주며 꿈같은 초현실적인 느낌을 자아냅니다. 이는 작가가 기억과 상상을 재구성하여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독특한 미적 시각으로 전달하는 결과물입니다. 대칭적 구성은 시각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합니다.

박기현 작가는 끊임없이 기법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입체적인 조형 작업을 통해 매체와 표현 방식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창작 여정은 기법의 실험을 넘어 창작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이며, 지속적으로 독창적인 시각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작품들은 대체로 좌우 대칭으로 안정감을 주며, 각 요소의 크기와 비중을 조절해 화면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이 특징은 작가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전달하며, 작품의 주제는 그가 소중히 간직한 기억과 감정을 담고 있어 진정성을 부여합니다.

Mentor's Comments

박기현 작가님은 여행을 좋아하고, 지리에 관심이 많으세요. 여행을 다닌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일상의 리듬을 지키면서 행복한 컨디션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해 나가야 하는지 작가 자신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 최윤정











사파리 여행  
2024  
캔버스에 아크릴  
61 x 50 cm



나인아치브릿지  
2024  
캔버스에 유채  
72.7 x 60.6 cm







## About Artist

심규철 작가의 작품은 상상력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관심을 본인의 최대 관심사인 게임, 만화등의 캐릭터 등을 통해서 재현해 내고 있다. 타인과의 정서적 단절이 심규철 작가의 장에 특성인 것을 생각하면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아마도 그러한 장애의 특성이 인물의 특징을 다른 게임의 캐릭터들로 대체하는 지점에서 보여지기도 하나, 여전히 타인과의 소통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때로는 현대인의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대변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타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싶고 자신의 세계에 대한 침범을 경계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카데미한 미술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혹은 발달 장애인 교육과정에 전문적인 미술교육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찰만을 통한 동세의 재현이 매우 자연스럽다는 점은 심규철 작가의 작품에서 일종의 경외감이 들게 만드는 지점이다. 인물의 동세의 재현은 단지 외형적인 관찰만으로는 어렵다. 각 관절의 움직임과 움직임에 따르는 과장된 표현이 구조적 이해 없이는 재현되기 어렵다. 간혹 보여지는 곤충의 움직임 메카니즘의 재현에서도 보여지는 움직임에 대한 이해는 심규철 작가의 작품에서 보는 이들에게 표현에 대한 유희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지점이 될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작품에서 오는 분할 화면은 화면의 확장에 대한 욕구를 보여주고 있다. 심규철 작가에게 보이는 화면의 확장은 큰 화면을 위한 캔버스나 종이의 사이즈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 보다는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상상속의 게임적 혹은 만화적 세계관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극되고 확장되는 상상 속 세계의 규모를 상상력에 의해서 작업 과정중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그 크기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 Mentor's Comments

심규철 작가의 작품은 작가가 평소에 접하는 게임과 애니메이션의 캐릭터가 한 화면에 모이게 되어 새로운 군상을 만든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특히 어떤 인물들이나 캐릭터가 아주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그 포즈를 재현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정확한 데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너무 유쾌하게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지점들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 노세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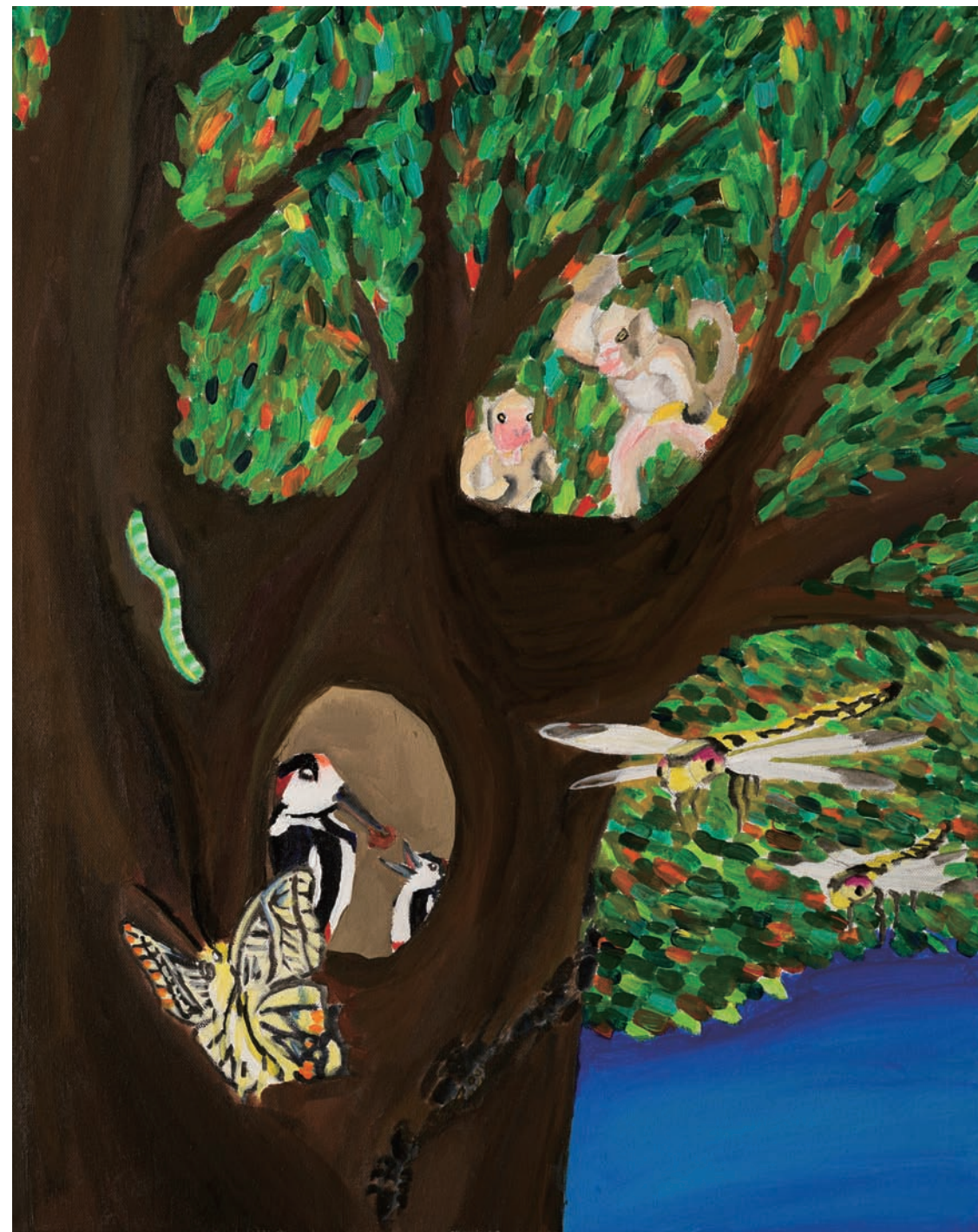


나무의 동료들  
2024  
캔버스에 아크릴  
60 x 72 cm 4점 세트





나무의 동료들  
2024  
캔버스에 아크릴  
60 x 72 cm



나무의 동료들  
2024  
캔버스에 아크릴  
60 x 72 cm





나무의 동료들  
2024  
캔버스에 아크릴  
60 x 72 cm



나무의 동료들  
2024  
캔버스에 아크릴  
60 x 72 cm



About Artist

효석 작가는 그리기라는 매체와의 만남에서 오랜 경험이 없지만, 최근 작업을 통해 창의성과 자유로운 표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창작 과정은 독창적인 조형성이 드러난 작품으로, 예술적 접근 방식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합니다.

주로 아크릴, 과슈, 오일파스텔과 같은 부드러운 질감과 뛰어난 착색력을 가진 재료를 탐구하며, 이는 왼손잡이로서 색채 표현에 대한 감각적 선호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는 캔버스 왼쪽 상단에서부터 거침없이 이미지를 채우며, 과슈의 부드러운 질감을 활용해 색을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일상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담아냅니다.

그의 작품에서 눈에 띄는 점은 고유색을 넘어서는 자유로운 색채 사용입니다. 이는 장애의 특징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작가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감정과 욕구의 표출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자기 탐구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분출되는 조형성이 돋보입니다.

효석 작가는 자신이 선호하는 매체와 표현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창작의 즐거움을 느끼며, 부담감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해가고 있습니다. 창작을 통해 내면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정형화된 표현이나 일관된 도상 대신, 자유로운 색과 형태로 자율적인 창작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 효석 작가는 창작의 자유로움과 자기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의 창작 과정은 자기 탐구와 자유로운 표현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 그만의 고유한 표현 언어가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Mentor's Comments

유효석 작가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거침없이 본인의 표현이나 이미지들을 표현하는 창작에 대한 열정이 많았어요. 기존에 갖고 있는 표현과, 확장되는 표현들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멘토링 과정을 통해 복합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스토리를 더 많이 담아내서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진행했어요. - 최윤정







발이 나온 새  
2023  
캔버스에 아크릴  
30 x 30 cm



앉아있는 부엉이  
2023  
캔버스에 아크릴  
30 x 30 cm





부끄러운 늑대  
2023  
캔버스에 아크릴  
72.7 x 60.6 cm



나의 축구장  
2024  
캔버스에 오일 파스텔  
116.8 x 91 cm





여러가지 동물들  
2024  
캔버스에 오일 파스텔  
90.9 x 72.7 cm



여러 가지 색 뱀  
2024  
혼합 매체  
72.7 x 60.6 cm





꿈꾸는 낙타  
2024  
캔버스에 아크릴  
53 x 45.5 cm



꿈꾸는 코끼리  
2024  
캔버스에 아크릴  
53 x 45.5 cm



About Artist

어릴 때 본 무지개가 작가의 마음을 가득 채운 듯  
그림을 그릴 때마다 무지개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작가는 청소년기에 몇 년간 중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언어소통이 어려웠던 작가에게는 그 시기가 외로움과 아픔,  
어울림과 기쁨이 어우러진 시간이었고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작가의 ‘무지개’가 새로워졌습니다.  
좋아하는 놀이공원, 문구점, 과자가게 등의 공간들이  
크고 작은 도형이 되었고, 모든 공간을 무지개색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작가의 그림 속에는 독특하고 다양한 캐릭터들이 살고  
있습니다. 각각의 캐릭터들은 무지개의 색깔과 다채로운  
조화를 이루며 보는 이들의 동심과 상상력을 상기시킵니다.

2024년에는 그동안 작가의 작품 속에 가끔 등장하던  
강아지 ‘토리’를 많이 그리게 되었습니다.  
‘토리’는 ‘외톨이’와 ‘빅토리’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외톨이’는 창작 과정에서의 고독과 인내를 상징하며,  
‘빅토리’는 예술 활동을 통해 성취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는 작가의 모습을 투영합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작가가 혼자 창작의 시간을 견디며,  
그 속에서 자신의 작품으로 관객과 소통하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작가는 무지갯빛에서 아름다움과 평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작가의 그림을 통해 그가 느끼는 아름다움과 평안이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Mentor’s Comments

이은수 작가님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받았어요. 작가님의 작품처럼 하늘에 떠 있는 화창한  
무지개 같은 긍정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이예요. 작가의  
창작 과정에서 작가님의 항상 웃는 모습들과 작가님 안에  
있는 또 다른 일상의 표정들을 볼 수 있었어요. - 최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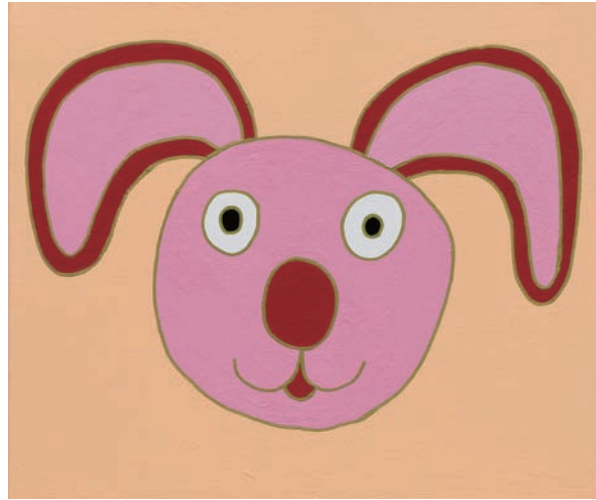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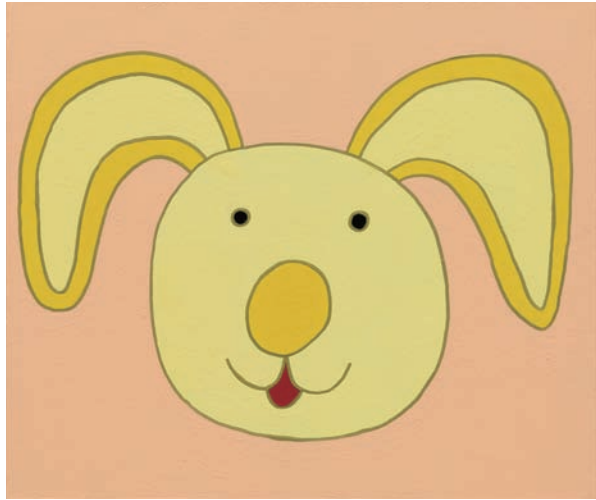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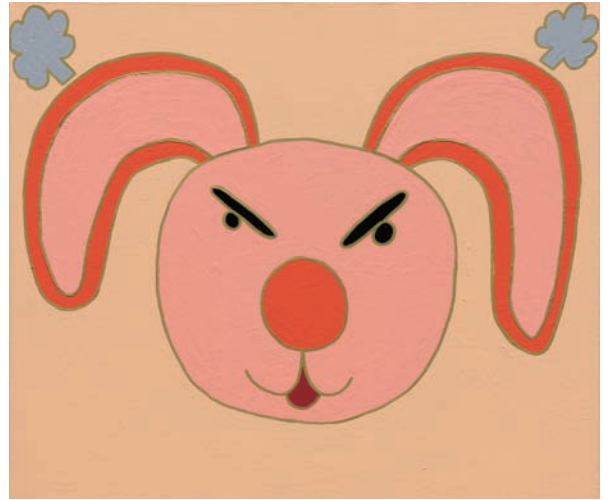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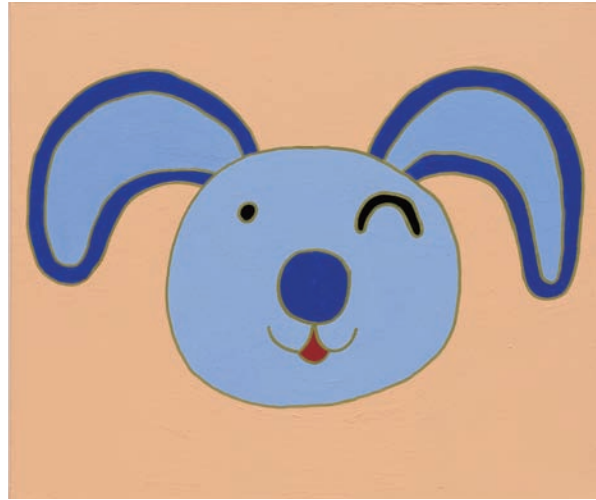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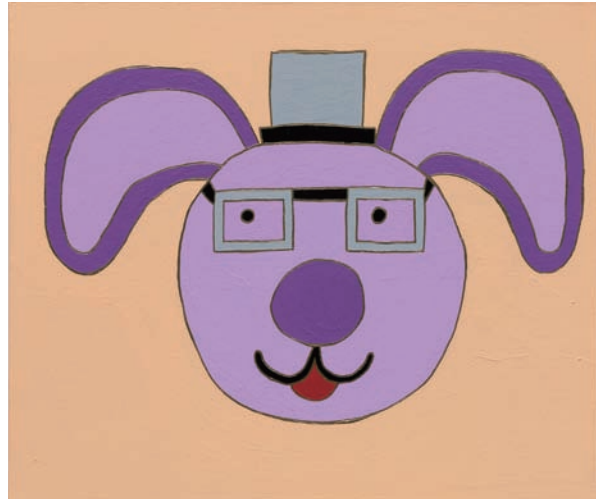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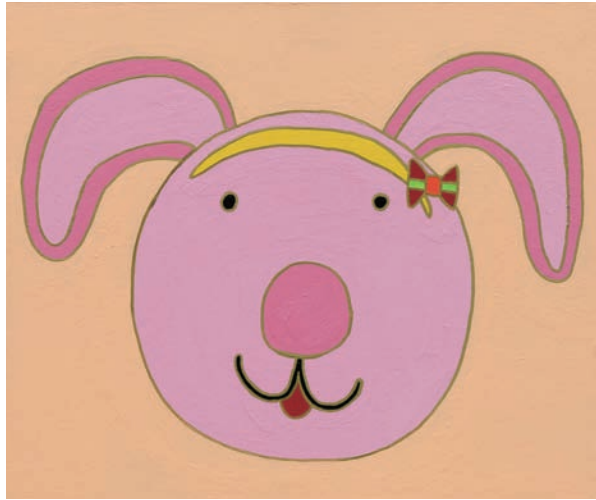






무지개캔디샵2  
2024  
캔버스에 아크릴  
60.6 x 50 cm





숙녀 핑크 토리  
2024  
캔버스에 아크릴  
53 x 45.5 cm

노랑 토리  
2024  
캔버스에 아크릴  
53 x 45.5 cm

신사 보라 토리  
2024  
캔버스에 아크릴  
53 x 45.5 cm

슬픈 초록 토리  
2024  
캔버스에 아크릴  
53 x 45.5 cm

윙크하는 파랑 토리  
2024  
캔버스에 아크릴  
53 x 45.5 cm

놀란 빨강 토리  
2024  
캔버스에 아크릴  
53 x 45.5 cm

화난 주황 토리  
2024  
캔버스에 아크릴  
53 x 45.5 cm

눈웃음 하늘 토리  
2024  
캔버스에 아크릴  
53 x 45.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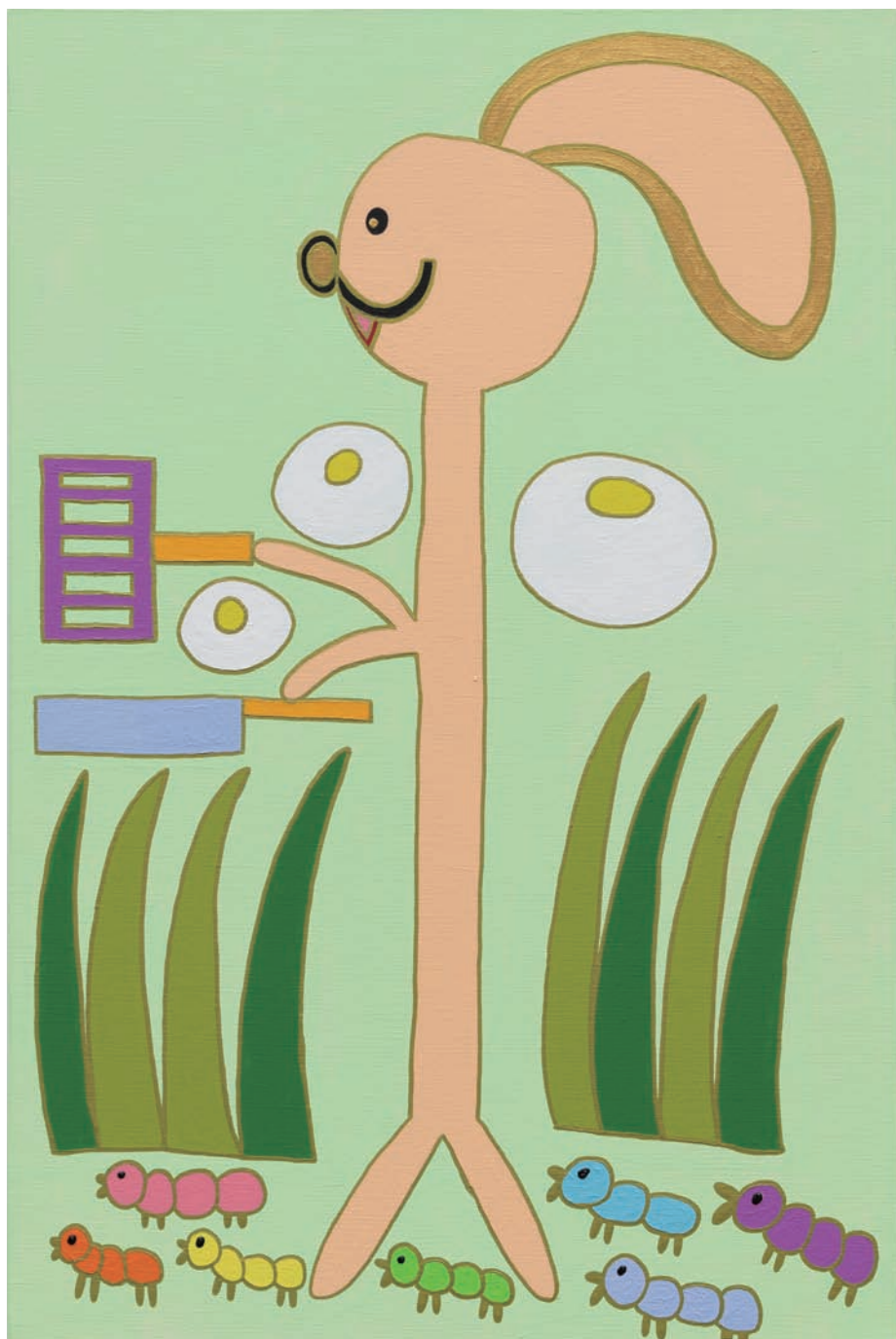


축구하는 토리  
2024  
캔버스에 아크릴  
60.6 x 90.9 cm



독서하는 토리  
2024  
캔버스에 아크릴  
60.6 x 90.9 cm





요리하는 토리  
2024  
캔버스에 아크릴  
60.6 x 90.9 cm



달리는 토리  
2024  
캔버스에 아크릴  
60.6 x 90.9 cm



About Artist

어릴 때부터 그림과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처음 부모님께 미술을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나는 행복한 화가가 꿈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쁠 때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림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며, 그림은 현실에 지친 나를 달래주는 쉼터처럼 느껴집니다.

주로 동물을 소재로 작업하는데, 특히 고래, 코끼리, 공룡 같은 큰 동물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고래는 내 작품 세계에서 신적인 존재로 꿈, 이상, 순수함, 악몽, 현실, 위압감 등 다양한 초자연적 현상과 감정을 상징합니다. 나는 캔버스 작업뿐만 아니라 동화 삽화, 웹툰, 디지털 드로잉, VR 창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을 그림을 통해 풀어내며, 이를 통해 나만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캔버스 100호 이상의 그림 두 점을 완성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나에게 그리는 몸짓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늑대의 혼>은 늑대의 거칠고 험한 이빨과 발톱 속에 숨겨진 상냥한 마음을 표현하였고, 그 마음이 깨지지 않도록 소중히 감추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황재>는 모든 생명이 이야기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으며, 백수의 왕이 자신의 왕관에 코끼리의 지혜, 기린의 자비, 얼룩말의 힘, 고릴라의 나눔 등 다양한 동물들의 이야기를 새겨 전하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Mentor’s Comments

조태성 작가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달에 두 번씩 오셔서 함께했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작업 스타일도 정말 성실하게, 쉬지 않고 작업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작업 방향을 제시해 주면 작가 스스로 생각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해서 온전히 자신의 그림으로 만들었어요. - 김동기











아프리카의 황제  
2024  
캔버스에 아크릴  
267 x 160 cm



늑대의 혼  
2024  
캔버스에 아크릴  
160 x 200 cm







# 우리시각의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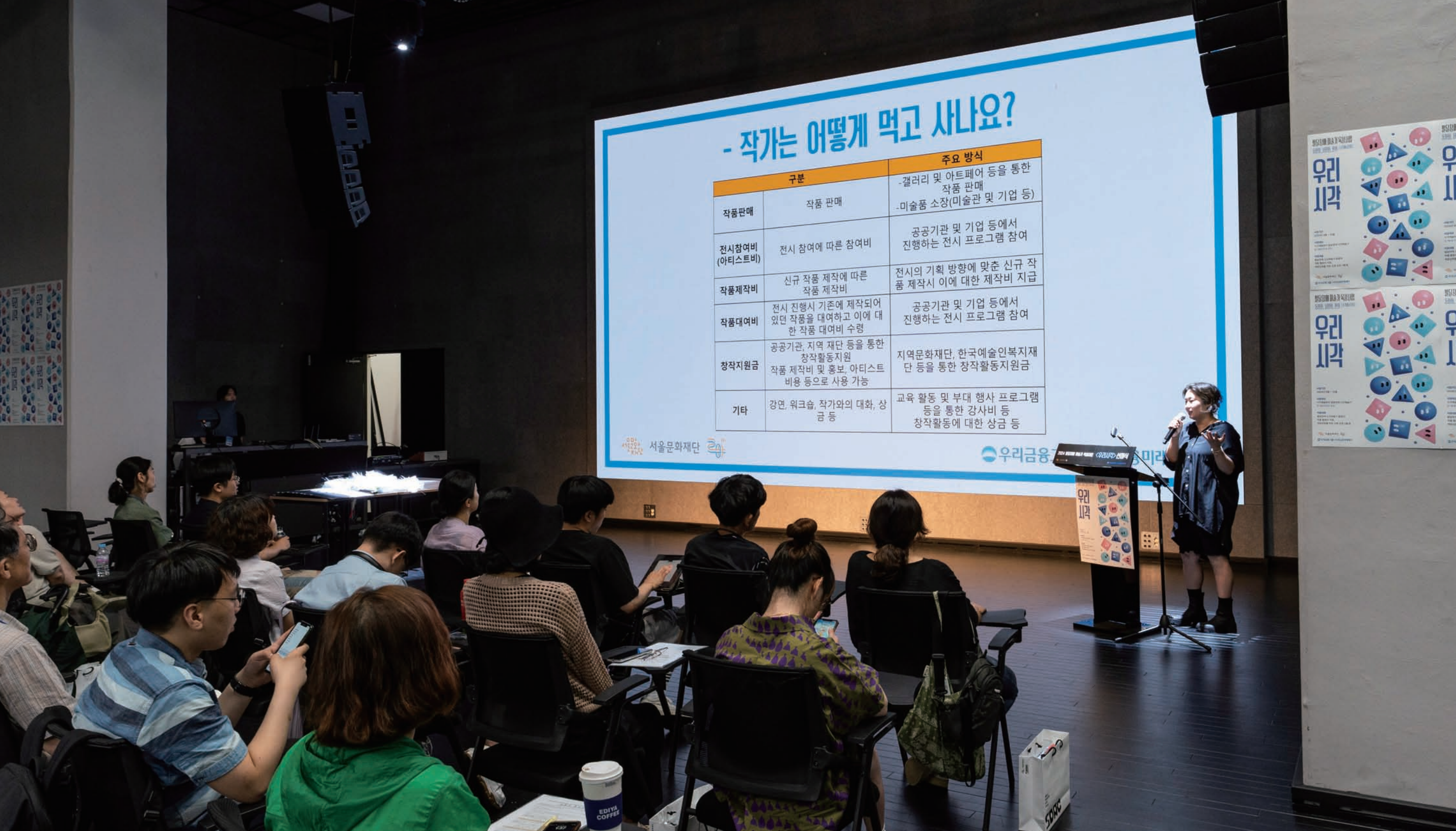
2024년 6월 15일 #실기심의





2024년 7월 2일 #선정식 및 OT





## - 작가는 어떻게 먹고 사나요?

| 구분               |                                                            | 주요 방식                                            |
|------------------|------------------------------------------------------------|--------------------------------------------------|
| 작품판매             | 작품 판매                                                      | - 갤러리 및 아트페어 등을 통한 작품 판매<br>- 미술품 소장(미술관 및 기업 등) |
| 전시참여비<br>(아티스트비) | 전시 참여에 따른 참여비                                              |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서 진행하는 전시 프로그램 참여                    |
| 작품제작비            | 신규 작품 제작에 따른 작품 제작비                                        | 전시의 기획 방향에 맞춘 신규 작품 제작시 이에 대한 제작비 지급             |
| 작품대여비            | 전시 진행시 기존에 제작되어 있던 작품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작품 대여비 수령                |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서 진행하는 전시 프로그램 참여                    |
| 창작지원금            | 공공기관, 지역 재단 등을 통한 창작활동지원<br>작품 제작비 및 홍보, 아티스트 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 | 지역문화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을 통한 창작활동지원금                  |
| 기타               | 강연, 워크숍, 작가와의 대화, 상금 등                                     | 교육 활동 및 부대 행사 프로그램 등을 통한 강사비 등 창작활동에 대한 상금 등     |

서울문화재단

우리금융





2024년 8월 13일 #전시관람 현장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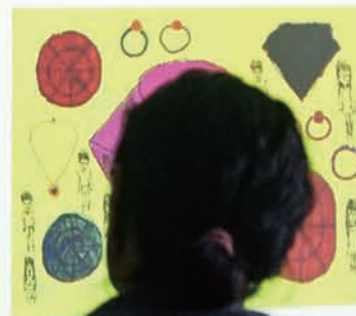






KANG  
WON  
JIN

- 작가
- 주제 -여인
- 주제 -만화
- 주제 -기타
- 작업노트
- CONTACT



40cmX32cm Acrylic, mix





2024년 12월 11일 #결과 공유워크숍







2024 발달장애 미술가 육성사업  
<우리시각> 작가 작품소개집

|               |                                         |
|---------------|-----------------------------------------|
| 발행일           | 자료집 기획 및 제작                             |
| 2024년 12월     | 서울문화재단 제휴협력팀<br>강지은, 김아름                |
| 발행처           | 디자인                                     |
| 서울문화재단        | 이준규 / untide.org                        |
| 후원            |                                         |
| 우리금융미래재단      | 도움주신 분들<br>멘토 / 김동기, 김태협, 나오미, 노세환, 최윤정 |
| 사업운영          | 예술하는 오아시스                               |
|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 피그리프 스튜디오                               |
| 김유진, 박성빈, 유수연 |                                         |
| 운영지원          |                                         |
| 우리금융미래재단      |                                         |
| 김병진           |                                         |

© 2024 서울문화재단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및 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 및 해당 저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복제, 변형, 송신을 금합니다.

서울메세나사업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전문법인인 서울문화재단은 '서울메세나사업'이란 이름으로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제휴협력 및 예술후원 사업을 기획·운영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 영역 확장과 이를 통한 예술인 창작지원,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기업의 ESG경영과 서울시 정책 방향이 연계된 문화예술 협력사업 개발·제안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예술분야 전문 창작 공간으로 2007년부터 17년간 400여 명의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며 상징적인 장애예술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입주 예술가 창작 지원사업과 전 분야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발표를 지원하는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 및 기관들과의 후원 및 제휴 사업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마련하고 예술생태계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